

정시 모집군

정시에서 선발하는 모집 단위를
가·나·다군 3개로 구분한 것.

각 군당 한번만 지원 가능

취재 송지연 기자 nano37@naeil.com

정시에서 대학은 가·나·다군으로 나누어 선발합니다. 수험생은 각 군당 1회씩, 총 3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과 사관학교, 경찰학교 등 특수 목적대학은 지원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군의 원서 접수 기간은 동일하지만, 면접·실기 시험을 운영하는 전형 기간은 겹치지 않습니다. 2026학년 기군의 전형 기간은 1월 5일부터 12일까지이며, 나군과 다군은 각각 13~20일, 21일~28일입니다.

각 대학의 모집군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별 모집 대학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대입 정보 포털 '어디 가'의 '대입정보자료실'에 게시된 자료집을 활용하면 됩니다. 한 대학이 2~3개의 군을 나누어 모집하거나, 당해에 모집군을 바꾸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시 지원 전 희망 대학·학과의 모집군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이 모집군을 선택하는 기준은 뭔가요?

대학은 우수한 지원자를 모으기 위해 대학 간의 관계, 구도를 고려해 모집군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와 고려대·연세대는 지원자층이 겹치므로 주로 다른 군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수험생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서울대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이 고려대·연세대에 등록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고려대·연세대는 성적이 우수한 지원자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2022학년 서울대가 나군으로 이동하자, 전까지 나군에서 선발하던 고려대와 연세대는 가군으로 옮겼습니다.

한편 2025학년에는 다수의 주요 대학이 다군에 합류했습니다. 다군은 중상위권이 선호하는 대학이 적어 경쟁률이 높게 형성됐는데, 이를 고려해 더 많은 지원자를 확보하고자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모집 단위의 군이 변경될 경우 전년의 지원 결과를 그대로 참고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수험생의 지원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